

양계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한 달걀·닭고기 수출문제

- ❖ 이번 육계파동을 전후하여 여러가지 대책이 많았다. 그 중에서 많은 양 ❖
- ❖ 개인의 시선을 집중한 것이 달걀 및 닭고기의 해외수출 문제였다. 그러 ❖
- ❖ 나 본 협회에서는 이 문제를 국가손익의 차원에서 외화순실이 아닌가하 ❖
- ❖ 는 고려 때문에 본지에 게재를 주저하였다. 이제 1차 수출이 끝난 현시 ❖
- ❖ 점에서 관계자를 모시고 그에 관한 여러가지를 알아보기로 하자. ❖

달걀·닭고기를 수출하게 된 경위

사회 : 안녕하십니까.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난해는 우리 양계업계에 무척 어렵고 생사의 기로에서 방황하던 해였습니다. 더구나 닭고기의 가격하락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. 이의 대책으로 당국과 각 단체에서 여러가지가 논의되었지만 민간인으로서는 최사장님께서 달걀과 닭고기의 수출을 시도하셨습니다. 그 경위를 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.

최상 : 예. 지난 9월 말부터의 육계가격이 하락이 되어 이러다간 야단이다 싶었지요. 그래서 국내시장보다 국외로 풋을 길은 없을까하고 살피던 중 일본이 년중 약 20,000톤의 닭고기와 계란 22,000톤을 수입하는 것을 보고 일본의 이노쓰, 니폰 햄, 마르베니, 소화효소등과 접촉을 하였습니다. 결과 일본의 소화효소와 얘기가 되어서 맨 처음 닭고기를 견본으로 보냈었지요.

그러나 이 닭고기가 냉동의 부족과 제품자체가 완전치 못하다하여 보류되었어요. 그래서 달걀을 보냈더니, 다행히 달걀은 가능하다하여 우선 달걀만 1971년 12월 17일 6톤을 일본에 수출하였읍니다.

사회 : 닭고기의 제품이 완전치 못하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요? 그리고 이번 수출된 달걀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요.

최상 : 일본에서는 닭고기의 냉동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더군요. 급속냉동으로 -45°C 까지 10~18시간 냉동된 제품을 요구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시설이 미비하고 그런대로 쓸 수 있는

게 영육과 경북축산정도인데 기존시설에 약간의 부가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.

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. 이번 달걀의 수출 원가를 보시면 이와 같읍니다.(표 참조)

달걀의 수출원가 계산서(대란 55g 이상)

항 목	수 량	단 가	금 액	비 고
계란(백색)	108,000개	8.50원	918,000원	
선 란 비		0.4	43,200	
운반증파란		0.50	54,000	
난 쪽 대	4,200대	9.00	37,800	
수 송 비	차량 2대	35,000	70,000	부산↔서울
상 자 대	300개	130	39,000	
계란검역비	100개 당	4.00	4,320	
통 관 제 세			27,740	
기타경비			20,000	
합 계			1,214,060	

이상인데 거기에서 받는 가격은 FOB 가격으로 kg당 0.43달러이니까 총액 $2,580\text{달러} \times 373\text{원}(\text{달러환율}) = 962,340\text{원}$ 이 되지요. 그래서 $1,214,060 - 962,340 = 251,720\text{원}$ 의 적자를 내게 되었읍니다. 결국 달걀 6톤 생산에 25만원의 적자를 본 것�이지요. 이것을 달러로 계산하면 약 674달러가 손해 본 것입니다.

사회 : 잘 알겠습니다. 그것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초생추의 달러가격과 사료의 달러가격만 가지고 따지고,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료와 인건비등을 제한다면 달러 손실이 약간은 적어지겠

■ 포커스



참석자 : 황인목 (조일부회장 대표)

최상진 (서울시청 축산계장)

사회 : 김영옥 (본지 편집부장)

때 : 1971년 1월 12일

곳 : 한국가금협회 회의실

지만 하여튼 달러의 손실은 있겠지요. 그 문제때문에 본 협회에서도 수출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황계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.

황인 : 원래 수출문제는 관이 앞장서서 다루어야 되겠지만, 민간인이 앞장섰다는데에 대해서, 또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하는데에 대해서 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번 수출문제는 가격안정에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차 국가의 수익면에서 정책기관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. 왜냐하면 양계산물의 원자재 80% 이상(부로일리의 경우)을 외국에서 도입하여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계육의 경우 30% 이상의 적자를 봄아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수출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기관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.

항 목	금 액	비 고
생계대 (1.5kg)	300원	생계 1kg 200원
도 계 비	20	
포 장 비	6.50	
냉 동 비	8.50	
냉 장 비		
수 송 비	5.0	대구↔부산 4톤이하 = 15,000원 5,000원÷1,000수=5원
통관비, 하역비 검 역 비	2.0	
기 타 짐 비	3.50	1톤 13,500×14톤=49,000 5일 소요(대구 부산 여비)
사 업 이 익 (소요액의 %)	18.00	353원×5%=18.00원
합 계	371원	

이중에서 부산물대금 24원(가식내장 23원 불가식 내장 1원)을 제하면 수출원가 347원이 됩니다.

얼마나 손해를 보나?

사회 : 달걀 6톤에서 25만원의 손실이 난다면 심각한 문제이군요. 혹시 닭고기의 원가계산은 해보셨는지요. 그리고 거기에서는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를 계산해 보셨는지요?

최상 : 예. 계육을 수출한다고 하였을 때 다음 표와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즉.

위와 같이 되는데 1.5kg 한 마리에 371원이 되는 편이지요.



수출 예정이었던 14톤을 가격으로 따지면

$$14\text{톤} \times 0.654(\text{FOB가격}) = 9,100\$$$

$$9,100\$ \times 373\text{원}(\text{환율}) = 3394,300\text{원} (\text{수출 수입 대금})$$

$$14\text{톤} \times 347\text{원}(\text{생산원가}) = 4,858,000\text{원}$$

$$\text{차액 } 4,858,000 - 3,394,300 = 1,463,700\text{원} (\$ 3,924)$$

즉 14톤 수출에 1,463,700원이 달리로 따져서 3,924달러를 적자를 보게 되는 셈이지요.

사회 : 그렇게 되면 그것 야단이군요. 어떤 보상대책이 없다던지.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수출전장을 한다던지 하지 않으면 안되겠군요.

최상 : 예 바로 그 점입니다. 그래서 구상무역으로 태국산 칡넝쿨을 들여오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국내 양곡정책에 위배된다하여 보류되고 지금 연구중입니다만, 만약 이것이 잘 안된다면 모처럼의 수출문제도 결렬이 되지요.

사회 : 정부 당국에서도 달리의 손실이라면 여려가지로 어렵겠군요. 어떻게 일본수출가격을 좀 옮길 수 없을까요.

황인 : 예 그래서 지난번 일본의 소화효소축에서 왔을 때 가격과 너의 시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얘기 했더니 지난번에 초청장이 왔어요. 그래서 지금 수속중인데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와서 참고를 할 생각입니다. 물론 가격문제도 인상을 시도해 봐야겠지요.

문제점은.....

사회 : 그러면 수출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 될까요?

최상 : 첫째는 국가에서 보상입니다. 지금 현재 수출분에 대하여도 구상무역신청이 나고 있지 않으니 앞으로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안되는 것이지요. 그리고 달리 손실도 제가 생각하기는 외국에서 들여온 병아리 사료의 보세가공품을 국내에서 소비하기보다는 일본에 팔아 국민에게 유리한 물건을 들여와 그 이익으로 30%의 적자를 메꾸면 가능할 것 같애요.

황인 : 그리고 도계장 시설문제는 도계장에서

급속냉동시설을 갖추려면 첫째, 일본에서 계속수입하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할거고, 둘째는 국가의 보상책이 결정되어 수출이 가능해야 되고, 셋째 공장이 쉬지 않도록 병아리구입이 쉬워야되는 등 문제가 있겠지요.

최상 : 예 그것은 일본에서년중 1,200톤을 수입하겠다고 제시를 했으며 병아리 구입은 계약생산에 의해 20만수를 구입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정부의 보상이지요.

황인 : 저는 그 보상문제는 국내 가격안정체으로 임시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매달 100톤 수출하는 데 약 1억 4천만원의 보상예산이 필요하다면, 그 돈으로 차라리 200원씩 70만수를 구입하여 사회사업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안정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낫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영구적인 수출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.

사회 : 또 일본에서의 수입세 20%는 감면할 가능은 없습니까?

최상 : 그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초생추의 구입을 대부분 일본에서 관세없이 구입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우리의 양계 생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주선해봐 주셨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.

사회 : 또 수출품에 대한 위생관계는 어떻게 됩니까?

최상 : 일본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살모넬라균, 대장균, 뉴캣술, 코라이자, CRD 등인데 다행히 우리 계란에는 그런 걱정이 없었고 무엇보다 파란이 적었고 신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지요.

앞으로는.....

사회 : 그건 참 다행한 일입니다. 앞으로는 이 수출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

최상 : 예. 지금 현재 63톤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만,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수출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.

사회 : 우선 이번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청들어온 것이라도 수출할 수 있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 오랫동안 감사합니다. □□□